

HTML

인터넷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그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대를 가져온 것은 WWW(월드 와이드 웹)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세계는 WWW만은 아니다. 전자메일이나 화일전송 등 많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화상·사진 등의 그래픽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조합한 WWW의 등장이다.

WWW를 이용해 기업이 홈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는 바, 기업은 새로운 선전 매체로써 WWW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구인매체로써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이 홈 페이지를 여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그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언어가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인 것이다.

HTML은 「도큐먼트의 구조를 기술하는」언어로, 도큐먼트란 WWW에서 표시되는 1페이지(1화면)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홈페이지를 차례차례 클릭해 가면 그에 따라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그 화면의 구조(요소) 그 자체는 많이 공통화되어 있다. 예를들면, 타이틀이 있고, 페리그래프(요약)가 있으며, 목차가 있다고 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큐먼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 HTML로, 이 「구조를 기술(記述)」한다고 하는 점이 HTML의 최대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HIML은 텍스트, 화상, 그림을 다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도 그것이 타이틀인지, 페리그래프 인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웨이브(거미줄)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단순한 계통구조가 아닌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는 미리 구조를 생각하고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바, HTML은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언어인 것이다.

HTML의 도큐먼트는 텍스트화일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태그」라고 불리는 부분이 도큐먼트의 요소나 구조를 지정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링크를 나타낸다. 다른 언어로 말하면, 우선 텍스트화일이 있고 그 내용별로 태그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태그에는 예를 들면 <TITLE>이 있고 이것을 텍스트화일의 모두(冒頭)에 쓰면 그 텍스트화일이 나타나 <타이틀>이라는 것이 지정된다. 페리그래프에 대해서는 <P>태그로 지정한다. 이처럼 HTML은 요소에 따라 지정하며, 또 다른 홈페이지와의 링크도 지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이다.

HTML은 코멘드의 수가 적어 습득이 용이하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네트워크 상에서의 전송도 빨리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 말하자면 네트워크베이스로 Contents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초의 버전인 HTML에서는 텍스트의 글자를 내리거나 센터링할 수 없는 등 표현상의 한계가 있었으나 HTML+에서는 센터링 기능 등의 새로운 표현기능이 부가되어 의견상으로도 돋보이고 간소하기 때문에 DTP(데스크탑 퍼브리싱)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WWW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라우저(WWW의 검색소프트)의 발전·충실도 진행되고 있어, 그에 대응하는 형태로 홈페이지 작성 Tool도 진화하고 있다.

네트썬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인터넷은 WWW의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보급의 방아쇠가 되었다. 말하자면 정보를 보고 즐기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정보를 발신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 HTML은 PC를 어느정도 습득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 나아가 단련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정보발신과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